

미술사의 핵심 장면 산책하듯 보고 즐기기

이연식의 서양미술사 산책

이연식 지음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 나들이에 선풍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술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일 거다. 어렵 사리 큰 마음 먹고 전시장을 찾은 나면, 미술에 대해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기도 한다. 그 중에서 미술사(史)를 통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미술과 친해지는 방법 중 하나다.

미술사가 이연식씨가 펴낸 ‘이연식의 서양미술사 산책’은 미술과 친해지는 근사한 길라잡이다. 여러 권으로 구성된 미술사 책도 좋지만 엮기만을 모은 ‘한권’으로 미술사의 흐름을 알아가는 것은 이제 막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이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편안하게 쉬운 구어체로 풀어나가는 글은 유명 작가와 작품을 포함해 미술사의 핵심 장면들을 간결하게 소개해 쉽게 읽힌다. 꼭 필자와 함께 미술사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작품 한점 한점에 대한 이야기와 당시의 미술 사조 등을 직접 듣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준다. 여기에 150장의 풍부한 컬러 도판이 읽는 재미를 더한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미술사를 다루는 ‘순서’에 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 미술 등 대부분의 서양미술사 책이 언급하는 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지만 순서에 변화를 줬다. 많은 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르네상스 시대를 시작으로 19세기 인



상주의를 거쳐 현대 미술을 훑은 후 선사시대 등 미술의 기원을 가장 나중에 다룬다. 독자들이 낯설고 재미 없어 하는 선사

시대 미술 대신 흥미로운 부분을 앞쪽에 배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책은 모두 7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우리가 아는 미술의 시작, 르네상스’에서는 ‘광장의 라파엘로’를 시작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를 다루며 르네상스 인간과 원근법 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2부 ‘바로크와 로코코’, 3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서는 카라바조, 벨라스케스, 렘브란트, 들라쿠아, 고야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어 4부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에서는 혁명과 도시, 계급의 문제를 언급하며 카페와 예술가, 찰나와 영원, 살롱을 둘러싼 소란과 반목 등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미술사를 들려준다.

5부 ‘추상미술과 초현실 주의’, 6부 ‘오늘날의 미술’에서는 세잔, 마티스, 로스코, 칸딘스키, 앤디 워홀, 뒤샹 등 새로운 미술 세계를 열어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현대 미술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한 콜라주 이야기와 함께 화이트 큐브를 벗어나 광활한 해변 등을 무대로 쓰는 공간의 확장과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퍼포먼스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울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한국에



1960년대 활약했던 프랑스 예술가 이브 클랭의 ‘허공으로의 도약’ 현장 사진. <은행나무 제공>

솔중합학교에서 미술학을 전공한 이씨는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 ‘눈속임 그림’ 등을 썼으며 ‘무서운 그림’, ‘명화

의 거짓말’ 시리즈 등을 번역했다. <은행나무·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일본식 소형주택=건축가가 설계한 독창적이고 우수한 소형주택이 많은 일본. 책은 독특한 콘셉트의 소형주택으로 주목 받고 있는 세대별 건축가 21인이 지은 일본식 소형주택을 소개하면서 시대와 함께 변해온 일본식 현대주택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 건축가들이 직접 자신의 설계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현대 소형주택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정리해 담아내고 있다.

<시그마북스·2만5000원>

▲솔직한 식품=정보의 홍수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밥상을 대하는 이들에게 ‘과학적으로 먹고 살기’를 도와주는 교양서. 사이비 과학과 뉴스에 난무하는 잘못된 식품 정보에 대한 오해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잘못된 식품 정보를 독자 스스로 가려낼 수 있도록 기억해야 할 원칙들을 알려준다. 1부에서는 식품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6가지를 바로잡고, 2부에서는 그런 오해를 촉발시킨 원인 제공자들, 정보 수용자, 식품회사, 식품 연구자 각각의 역할을 살핀다.

<창비·1만4000원>

▲언기처럼 사라진 남자=경찰소실의 모범 ‘마르틴 베크’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언기처럼 사라진 남자’는 ‘철의 장막’이 건재하던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그 영향력 아래 있던 헝가리가 포함된 동유럽 문제를 주로 다루던 스웨덴 기자가 실종되고, 마르틴 베크는 그 기자를 은밀하게 찾아오라는 외무부의 기밀 임무를 받고 헝가리로 떠난다. 긴박한 전개와 현실적인 인물이 자아내는 위트도 갖추고 있다.

<엘릭시르·1만2800원>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대한민국의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어디



서 나오는지를 국가, 정책 분야, 리더십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서로 다른 세대를 경험한 두 사람이 만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국가 변화의 실질적인 모색을 찾아 나선다.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 시대의 주역 세대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메디치·1만2500원>

▲불편한 질문이 모두를 살린다: D-존=D-존 대화는 흔히 말하는 ‘도전적인 대화’와 다르다. D-존 대화는 지각과 감각의 변화가 상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분명할 때 구사할 수 있는 코칭 방법이다. 전 달할 메시지가 없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자신의 상황과 스스로를 다르게 인식하는 눈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기대해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라.

<이콘·1만3000원>

한국 건축 1세대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건축유산

경성의 건축가들

김소연 지음

“제1의애호가무섭다고그리요...”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오감도(烏瞰圖)’라는 제목의 시가 발표됐다. 띄어쓰기도 없고 1의 애해부터 13의 애해까지 무섭다고 하는 난해한 시였다. 독자들의 항의가 빚뻗었다. 작자는 이상(본명 김혜경) 시인이었다. 그는 폐결핵으로 26년7개월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시대를 앞서간 ‘모더니스트’였다.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의 본업은 건축가



였다. 그는 경성고등공업학교(경성고공) 건축과를 나와 1933년까지 조선총독부 내무국에서 건축기수로 일했다. 건축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시와 소설을 썼다. 문학가 김기림은 그를 “우리가 가졌던 황홀한 천재”라고 불렀다.

최근 출간된 ‘경성의 건축가들’은 일제 강점기를 산 다양한 건축가들을 다룬 책이다. 저자 김소연은 대학에서 철학과

건축공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건축소도리텔링연구소 ‘아키텐탈리’ 대표를 맡고 있다. 조선인 건축가들은 이상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근대건축 교육기관인 경성고공 건축과를 거쳐 총독부 등지에서 일했다. 화산백화점을 설계한 박길용을 비롯해 보성전문학교 본관(현 고려대 본관)을 설계한 박동진, 해방후 우리말 건축용어 정리에 평생을 보낸 장기인,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설계한 나카무라 요시헤이 등 책에 소개되는 조선인과 일본인 건축가들은 독자에게 낯설다.

저자는 일제강점기에 ‘기술자’로 인식돼 친일논란 마저 피해간 한국 건축 1세

대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건축유산에 대해 들여다 본다. 건축가 한명, 한명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시대를 산 건축가들의 이상과 고민을 퍼즐처럼 맞춰볼 수 있다.

저자는 이들에 대해 “독립투사가 아닌 한, 투철한 신념이나 의식을 가지지 않는 한, 친일과 저항의 꼭지점이 아닌 그 사이의 무수한 회색지대를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 시대의 건축가도 타협과 저항, 동경과 콤플렉스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변화하고 좌절했다”고 말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에도 많은 일제강점기 근대건축물이 산재해있다. 대부분 누가 설계하고 지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 어렵다.

<루아코·1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세상에서 가장 느린 책=꽃을 피우는 데 100년이 걸리는 식물, 한 시간에 날개를 한두 번만 퍼덕이며 활공하는 새, 600만년에 걸쳐 만들어진 그랜드 캐니언 등 ‘느림’이란 주제의 정보들을 한 데 모았다. 동식물, 인간의 몸, 지질학적 변화, 우주 공간까지 다양한 분야의 느린 대상들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펼쳐진다.

<그린북·1만2500원>

▲마음이 보여?=생각하는 그림책 시리즈. 팔랑귀러미 나타난 장난꾸러기 ‘반창고’가 유카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또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대할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해 주는 책이다. 정신과 의사 가야마 리카가 글을 쓰고 마스다 미리가 그림에 참여했다.

<너머학교·1만2000원>

▲변신돼지=찬이네 집에 온 동물들이 모두 돼지로 변신해 일어나는 유쾌한 소동



을 그린 이야기다. 똥똥한 외모에 진짜 돼지까지 키우게 되면 놀리기러오 전락할까 ‘돼지’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 찬이네 가족의 모습은 현대 사회 속에 곱씹어 볼 만한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비룡소·9000원>

▲왜 사람들은 피부색이 달라요? = 두 명의 아동심리학자가 아이들이 주로 하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소개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조언해준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2권 ‘왜 고맙다고 말해야 해요?’ 3권 ‘왜 체소를 먹어야 해요?’ 4권 ‘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가 함께 나왔다.

<이중주니어·각 권 9000원>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래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맡은터.com

솔향기맡은터



솔향기맡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맡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참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누,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